

## 익산 관음사 청년회 공양미 콘서트 개최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공양미 콘서트를 통해 모연한 자비의 쌀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관음사는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회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날 모아진 공양미 1,50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익산시에 전달했다.

관음사 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공양미 콘서트에는 덕림 스님,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가릉빈가 불교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연 공양미 콘서트는 관음사 청년회 중창공연, 관음사 어린이 풍물단의 공연에 이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열전이 펼쳐졌다.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관음사 관음전의 신축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림 스님은 "시민이 기부하고 시민에게 베푸는 화합의 장을 열어 모두가 흐뭇한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아 공양미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천태종 대구 대성사 창립 51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창립 51주년 기념 대법회를 10월 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前총무원장 춘광 스님, 원로의원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윤수현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신념으로 배워 올바른 믿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력과 서원을 세워 바로 믿고, 바로 알아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 볼 줄 아는 공덕으로 두루 법계에 회향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사부대중은 열심히 더욱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복덕으로 대구시민의 편안한 화합의 장이 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귀의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특별수행원으로 천지 방문 감동**
**백두산 올라 남북불교교류 발원**
**남북불자들 北사찰서 만남 기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 백두산 천지에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거듭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백두산에 오르고, 천지 물을 만졌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종교를 비롯한 각 분야 대표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단이 동행했다. 불교 대표로 참가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하 민추본) 원택 스님은 10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원택 스님은 2박 3일 간 일정 중 백두산 천지 등정〈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스님에 따르면 20일 새벽, 순안공항서 삼지연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내리던 비는 삼지연에 도착하자 이내 그쳤다. 이윽고 환한 해가 뜨자 경직된 현장 분위기도 차츰 부드러워졌다는 후문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장군봉으로 오른 뒤, 다시 차로 이동해 천지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 물을 얼굴에 적시면서 하루빨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남은 많은 북한의 폐사지를 복원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빛나는 조국'이란 제목의 카드섹션 및 율동 공연도 인상적이었다고 스님은 말했다. 19일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서 1시간 15분 가량 펼쳐진 공연에는 15만 관중과 1만 4300명의 평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16년 전 '아리랑' 공연이 위압적·전투적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평화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내용이었습니다. 공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중을 향해 연설하자, 북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추본과 원택 스님은 대북사업 구체화 및 조불련과의 협의를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측 만남을 염두에 두고 관련 브리핑을 준비해갔다. 그러나 평양에 파견된 특별수행원들의 활동은 제한적이어서 북측 관련단체와 연락이나 대화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안내인에게 몇 번 조불련 관계자와 대화할 수 없는지를 물었는데, 다음날 돌아온 답은 '강수린 조불련위원장이 스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는 전화가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제가 평양서 들었던 조불련에 관한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민추본은 조불련과 4년 만에 8·15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1주년을 맞아 300여 불자들과 방북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추본 측은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조불련 편에 답신이 오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신계사 복원 기념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원택 스님은 김 위원장, 그의 부인 리설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세 사람과 악수하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남북불교계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되는 날이 속히 오길 발원했다.

# 자현 스님 "승려노후복지 초석 다질 터"

##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취임한 자현 스님이 승려노후복지에 역량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자현 스님은 10월 4일 고운사에서 봉행된 주지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임기 안에 고운사 본말사 재적승, 재직승들을 위한 노후복지의 초석을 반드시 다지겠다"며 "공심으로 교구를 이끌어가겠다. 대중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각 사찰마다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함께하는 본말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산식에 동참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고운사 교구에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고찰이 많다. 교구 전체가 민족문화의 보고이며, 온전히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진산식의 향기가 종단 곳곳에 퍼져 혁신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상북도의 불교문화가 꽃피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지사로서 문화관광사업 진흥 등을 통해 고운사 발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운사 주지 진산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재원·김광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발우공양·사찰음식 伊서도 '인기'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슬로푸드 축제 참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9월 22~26일 이탈리아 '세계슬로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미식과학대학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연을 실시했다. 사업단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식 프로그램인 '맛 워크숍'에서 수행자의 전통식사법인 발우공양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발우공양 워크숍'을 운영했다.

윤호섭 기자

## 송월 스님, 군산교도소 불상 봉안

### 재활관 재소자 위한 수계법회도 봉행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은 9월 27일 군산교도소 재활관에서 불상 봉안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관음사 도천 스님, 은적사 석초 스님, 성흥사 보위 스님을 비롯해 불교교정위원과 재소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봉안된 불상은 송월 스님이 재소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사재를 털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주노동자, 겨울 감기 뚝!"

### 마하이주민센터, 9월 30일 무료 예방접종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산하기관인 구미 마하이주민센터는 9월 30일 센터 마당서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실시했다. 행사는 박미애 가정의학과의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다. 구병화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감기에 취약한 상태로 지낸다"며 "2013년부터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 주시는 의사분들 덕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은 군승 파송 50주년!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外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內 ☎ 02)797-7266,749-8646 www.gunindr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Tel 02-356-2001 Fax 02-359-6297
